

식품 지출 동향과 2025년 4분기 ~2026년 4분기 지출 전망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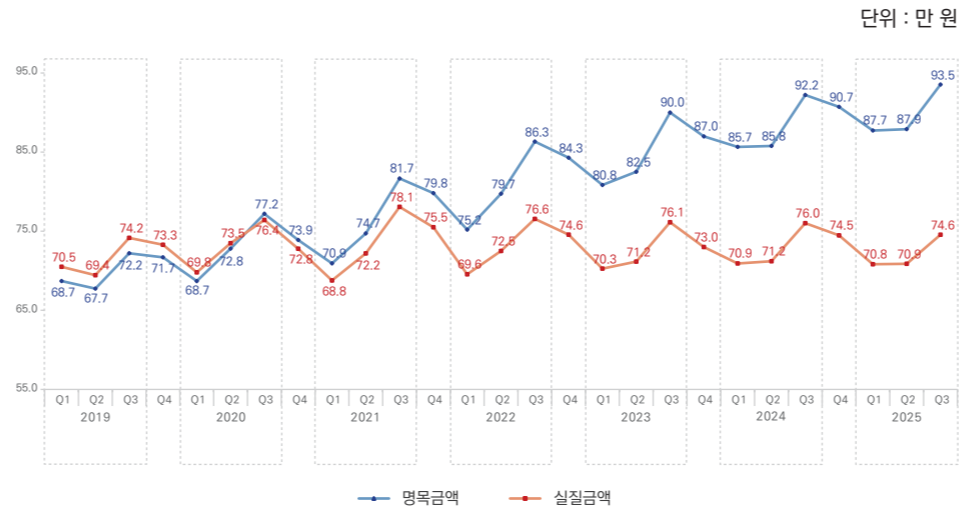
임지은, 정희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은 식품산업 정보를 수집·가공·심층분석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정·운영되고 있음.
- 가공식품은 우리나라 식품 소비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가구의 가공식품 소비 지출과 동향을 파악하고 단기 식품 유형 및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을 전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가구의 식품 소비 특성을 파악함.
- 이에 식품외식정보 웹진 2025년 제19호에서는 가구의 가공식품 소비 지출과 동향을 파악하고 단기 식품 유형 및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을 전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가구의 식품 소비 특성을 파악함.

1. 식품 소비 지출 동향

- 가구의 월평균 명목 식품비는 2025년 3분기 기준 93만 5천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92만 2천 원)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2019년 3분기에 비해서는 29.5% 증가하여 가구당 월평균 명목 식품비 지출액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임. 명목금액을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실질금액으로 환산하면, 2025년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 식품비 지출액은 70만 8천 원, 2분기에는 70만 9천 원, 3분기 74만 6천 원으로 2024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함.
 - 가구의 명목 식품비 지출액과 실질 식품비 지출액은 2019년 1분기~2021년 1분기까지 유사한 추이를 보이다가 이후 점점 격차가 커지는데, 이는 2021년 1분기 이후부터 식품 소비자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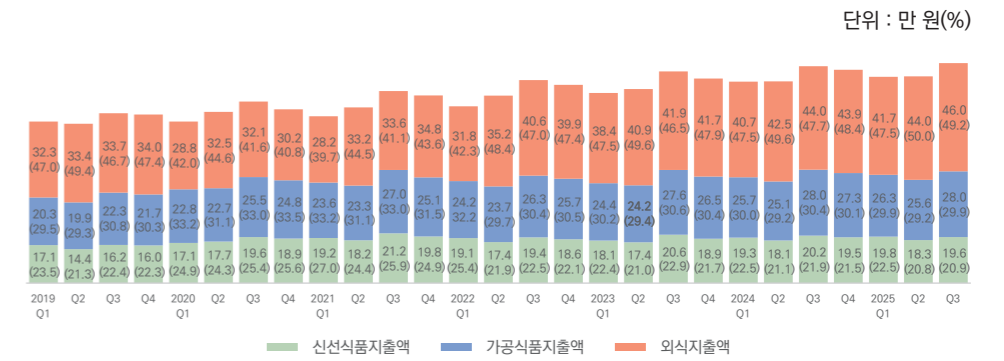
Ⅰ 분기별 가구당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 추이(2019년 1분기~2025년 3분기)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의 공표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됨.
 2) 식품비 지출액은 명목금액과 실질금액 모두 각각 가계동향조사의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주류, 그리고 식사비(외식비, 단체제공식, 주점·커피숍)의 도합에 해당함.
 3) 2025년부터 가계동향조사 소비자지출 항목이 2019년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2019년 이후 통계는 신분류를 기준으로 공표된 자료를 사용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 가구의 월평균 신선식품 명목 지출액은 2025년 3분기 19만 6천 원으로 전년 동기(2024년 3분기) 대비 3.0% 감소함. 총 식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5년 3분기 20.9%로 전년 동기 대비 1%p 낮아짐. 신선식품 지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 지출액 대비 20.7% 증가하였으나, 비중으로는 1.5%p 하락함.
 - 2020~2021년 외식 감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신선식품 지출액은, 이후 외식 회복과 함께 점차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추세
- 가구의 월평균 가공식품 명목 지출액은 2025년 3분기 28만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임. 총 식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5년 3분기 29.9%로 전년 동기 비중인 30.4%에 비해 0.5%p 감소함.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 지출액과 비교하면 25.6% 증가함.
 - 가공식품 지출액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로 전년 동기 대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을 기점으로 점차 완만해지는 경향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증가한 간편식 중심의 가공식품 소비 트렌드가 일정 부분 지속
- 가구의 월평균 외식비 명목 지출액은 2025년 3분기 46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함.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2021년 외식 지출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며 2023년부터는 외식 지출 비중이 상승한 모습임. 2025년 3분기 외식 지출 규모는 2019년 3분기에 비해서 36.4% 증가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임.

Ⅱ 식품 유형별 월평균 명목 식품비 지출액 추이



- 주 1) 신선식품 지출액은 곡물, 육류, 신선수산물, 과일, 채소, 알 및 알 가공품 지출액의 합, 가공식품 지출액은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가공품, 염건수산물, 기타수산물가공, 유제품(알 및 알 가공품 제외), 유지류,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건강보조식품, 식품가공서비스, 주류 지출액의 합, 외식비 지출액은 외식비, 단체제공식, 주점·커피숍 지출액을 포함하는 전체 식사비 지출액임. 식품가공서비스는 이전에 가정용품·가사서비스에 포함되었던 항목의 분류가 조정된 것으로 '사업자나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식품관련 서비스로 고추가루 쌀은 쌀, 기름판 쌀, 떡방아 쌀, 양파즙 등 가공비용 등을 포함함.
- 2) 2025년 가계동향조사 분류 개편에 따라, 가공식품 지출액 항목에 건강보조식품 및 식품가공서비스 이용금액이 포함되었으며, 2019년부터의 시계열 자료에도 이를 반영한 값이 적용됨.
- 3) 괄호 안은 분기별 식품비 지출액에서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 지출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이며, 비중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산출, 합계가 100.0과 차이 있을 수 있음.
-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 2025년 3분기 가공식품 16개 품목 분류별 월평균 명목 지출액을 기준으로 2019년 3분기 대비 지출 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비중이 증가한 품목 분류는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가공품, 유지류, 기타식품, 건강보조식품임. 반면, 수산가공품, 유제품, 채소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주스 및 기타음료, 식품가공서비스, 주류의 지출액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가구 내 간편성 선호 및 건강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곡물가공품과 빵 및 떡류, 육류가공품,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 곡물가공품 지출 비중(3분기, %): ('19) 7.4, ('22) 7.6, ('23) 7.7, ('24) 7.8, ('25) 7.9
 - 빵 및 떡류 지출 비중(3분기, %): ('19) 9.6, ('22) 10.5, ('23) 10.0, ('24) 10.1, ('25) 10.4
 - 육류가공품 지출 비중(3분기, %): ('19) 6.1, ('22) 6.1, ('23) 6.6, ('24) 7.0, ('25) 6.8
 - 건강보조식품 지출 비중(3분기, %): ('19) 9.5, ('22) 11.5, ('23) 10.6, ('24) 10.0, ('25) 11.3
- 냉동식품 등 간편식 수요 확대에 따라 기타식품 지출이 증가하고, 가정 내 조리 빈도 증가로 유지류의 소비 또한 함께 늘어난 것으로 해석됨.
 - 유지류 지출: (2019년 3분기) 3천 원 → (2025년 3분기) 6천 원으로 증가
 - 기타식품 지출: (2019년 3분기) 2만 1천 원 → (2025년 3분기) 2만 9천 원으로 증가

1) 2025년 발간 예정인 「2025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 보고서」 내용을 포함함.본 웹진에서 활용한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의 DOI번호는 10.23333/RN.50150276.V2.2, 10.23333/ RN.99990791.V1.4임.

가구의 가공식품 분류별 월평균 명목 지출액 구성

단위 : %

구분	곡물 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가공품	수산 가공품	유제품	유지류	과일 가공품	채소 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 식품	기타 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건강 보조식품	식품가공 서비스	주류
2019년 1/4	8.0	11.3	5.8	8.5	9.8	1.4	2.1	0.9	11.7	4.1	9.6	4.0	6.2	9.2	0.4	6.8
2019년 2/4	7.6	10.8	5.9	7.1	10.2	1.1	1.4	0.9	13.1	4.1	9.5	4.0	7.0	10.2	0.2	6.8
2019년 3/4	7.4	9.6	6.1	7.4	9.3	1.4	1.3	0.9	12.1	7.9	9.4	3.8	6.9	9.5	0.3	6.7
2019년 4/4	7.1	10.9	5.3	9.0	9.2	1.1	1.6	1.9	11.0	7.8	9.5	3.9	5.9	9.6	0.5	5.9
2020년 1/4	8.6	10.7	6.2	8.3	9.1	1.4	1.9	1.1	11.6	4.2	9.7	3.8	5.7	11.5	0.3	6.0
2020년 2/4	8.2	10.3	6.3	7.2	9.6	1.4	1.2	1.1	12.7	4.7	9.4	4.0	6.7	10.1	0.3	7.0
2020년 3/4	7.5	9.4	6.3	7.5	8.7	1.5	1.4	0.9	11.4	8.4	9.9	3.6	6.3	10.1	0.2	6.9
2020년 4/4	7.1	10.8	5.4	8.6	8.4	1.2	1.4	1.8	10.3	8.3	10.3	3.8	5.3	10.7	0.3	6.2
2021년 1/4	7.9	11.0	6.4	8.3	8.6	1.6	1.9	1.1	10.9	4.4	10.4	3.8	5.2	11.3	0.2	6.8
2021년 2/4	7.6	10.9	6.1	6.5	9.3	1.4	1.4	1.0	11.9	4.7	10.1	3.9	6.6	11.2	0.2	7.3
2021년 3/4	7.4	9.5	6.2	6.9	8.3	1.6	1.3	0.9	10.8	8.4	10.1	3.7	5.9	11.4	0.3	7.3
2021년 4/4	7.1	11.4	5.4	8.1	8.2	1.3	1.3	1.8	10.1	7.6	10.1	3.8	5.4	11.2	0.4	6.8
2022년 1/4	8.1	11.3	6.5	7.7	8.4	1.5	1.8	0.9	10.9	4.1	10.5	3.8	5.5	11.8	0.2	6.8
2022년 2/4	8.0	11.2	5.8	6.2	8.5	1.6	1.2	0.9	12.3	4.0	10.1	4.0	6.6	12.2	0.2	7.3
2022년 3/4	7.6	10.5	6.1	6.8	8.1	1.5	1.1	0.8	11.4	6.9	10.1	3.7	6.3	11.5	0.2	7.5
2022년 4/4	7.2	11.9	5.8	8.0	7.6	1.3	1.2	1.8	10.4	8.1	10.4	3.7	5.2	10.1	0.3	6.9
2023년 1/4	8.2	11.8	6.6	7.6	7.9	1.5	1.8	0.9	10.9	4.0	10.2	3.8	5.2	12.5	0.2	6.9
2023년 2/4	8.2	11.3	6.4	6.6	8.7	1.5	1.2	0.8	12.3	4.8	10.1	3.9	6.2	10.8	0.2	7.1
2023년 3/4	7.7	10.0	6.6	7.0	8.0	1.6	1.4	0.7	11.8	7.5	10.1	3.5	5.9	10.6	0.2	7.3
2023년 4/4	7.5	11.8	6.2	7.7	7.9	1.4	1.5	1.7	10.7	7.6	10.3	3.8	5.2	9.9	0.3	6.7
2024년 1/4	8.2	11.9	7.0	7.6	8.1	1.6	2.1	0.9	11.3	4.3	10.4	3.7	5.1	11.0	0.2	6.6
2024년 2/4	8.1	11.5	6.7	6.0	8.5	1.6	1.3	0.9	12.5	4.4	9.9	3.9	6.6	11.1	0.2	6.8
2024년 3/4	7.8	10.1	7.0	6.7	8.2	1.8	1.3	0.8	12.1	6.7	10.5	3.5	6.5	10.0	0.2	7.0
2024년 4/4	7.5	11.6	6.0	7.8	7.8	1.5	1.4	1.7	10.7	7.8	10.4	3.7	5.5	9.9	0.3	6.3
2025년 1/4	8.1	12.1	6.8	7.9	7.8	1.9	2.0	0.9	11.0	4.4	10.5	3.8	5.3	11.2	0.2	6.2
2025년 2/4	8.2	11.8	6.5	6.3	8.3	2.0	1.3	0.9	12.4	4.4	10.1	3.8	5.9	11.5	0.1	6.4
2025년 3/4	7.9	10.4	6.8	6.4	7.9	2.1	1.3	0.6	11.9	6.7	10.2	3.8	6.1	11.3	0.1	6.5

주 1) 명목금액 기준임.

2)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가공품, 유지류,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건강보조식품, 식품가공서비스, 주류 지출액은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공표자료를, 수산가공품(연근수산동물+기타수산동물가공+해조가공품), 유제품,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지출액은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2. 식품 유형별 지출 전망

● 가구의 식품비를 식품소비 유형별(신선식품비, 가공식품비, 외식비 지출액)로 구분하고 실질화하여 시계열 모형을 추정함. 분석자료는 가계동향조사 2006년 1분기부터 2025년 3분기 자료임. 종속변수는 신선식품 실질 지출액, 가공식품 실질 지출액, 외식비 실질 지출액이며, 설명변수로 가구의 평균 연령, 평균 가구원 수, 평균 가구소득 등의 가구특성 변수와 코로나19 기간 더미(2020~2022년 각 연도 더미)를 사용함. 시계열 계량분석모형 중 계절 ARIMAX (Seasonal ARIMAX) 모형을 이용함. 종속변수에 맞는 차분(계절차분 및 일반차분) 수를 결정하고 정보기준을 참고하여 모형을 설정함. 연속형 변수는 로그 변환 후 분석함.

- 가구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 식품소비 유형별 지출액은 각 분류에 해당하는 소비자물가지수(농축산물 물가지수, 가공식품 물가지수, 외식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
- 2017~2018년 분기 지출 자료는 국가데이터처가 제공하는 시계열 모형에 의한 분기별 지출 자료(1인 이상) 사용(가계동향조사 통계설명자료 참고)
- 시계열이 불안정하거나 단절된 자료를 제외하기 위해 지출액은 2008년 자료부터, 가구 주 나이와 가구소득은 2019년 자료부터 사용
- 설명변수 중 가구의 평균 연령, 평균 가구원 수, 평균 가구소득의 2025년 4분기부터 2026년 4분기까지의 자료를 시계열 모형으로 추정
- 시계열 자료에서 계절에 따라 반복적으로 변하는 패턴을 조정하고자 신선식품비, 가공식품비, 외식비는 모두 계절차분을 한 차례 실시하는 모형 적용²⁾

● 시계열 모형 추정 결과, 식품소비 유형별 지출액(신선식품비, 가공식품비, 외식비)은 가구소득과 코로나19 더미의 영향을 받음. 일반적으로 정상재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여력이 확대되어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식품소비 지출액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신선식품비, 가공식품비, 외식비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코로나19 기간(2020~2022년) 더미 가운데 2020년과 2021년 더미는 뚜렷하게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지출액을 증가시킨 반면, 외식 지출액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기간 더미가 지출액을 낮추는 영향을 보임. 가구 주 나이와 가구원 수는 신선·가공·외식비에 대해 유의한 영향이 없음.

2) 시계열 전망을 위해서는 계절적 변동과 추세의 불안정을 제거하여 안정적인 시계열로 변환할 필요가 있음(ADF 검정, KPSS 실시).

가구의 식품소비 유형별 지출액(신선식품비, 가공식품비, 외식비) 추정 결과

구분	신선식품비 ARIMA(2,0,0) (1,1,1,4)	가공식품비 ARIMA(1,0,2) (0,1,1,4)	외식비 ARIMA(2,0,1) (1,1,0,4)
가구주 나이	-0.397 (0.539)	-0.732 (0.631)	-0.100 (0.471)
가구원 수	-0.248 (0.592)	-0.655 (0.695)	-0.723 (0.488)
월평균 가구소득	0.640** (0.324)	0.394* (0.219)	0.772*** (0.183)
코로나19 더미 (2020=1)	0.093*** (0.027)	0.092** (0.042)	-0.096*** (0.013)
코로나19 더미 (2021=1)	0.093*** (0.033)	0.094** (0.046)	-0.075*** (0.016)
코로나19 더미 (2022=1)	0.013 (0.031)	0.045 (0.046)	-0.029*** (0.011)
constant	-0.028** (0.012)	-0.007 (0.013)	-0.015** (0.008)
AR1	0.221** (0.112)	0.826*** (0.163)	-0.719*** (0.192)
AR2	0.382** (0.162)		0.144 (0.152)
MA1		-0.334* (0.174)	1.000 (59.836)
MA2		0.369* (0.197)	
SAR1	-0.015 (0.247)		-0.321*** (0.105)
SMA1	-1.462*** (0.429)	-0.748*** (0.190)	
sigma	0.022*** (0.006)	0.024*** (0.002)	0.027 (0.795)
Obs.	71	71	71
Log-likelihood	141.744	163.19	155.684
AIC	-259.487	-302.381	-287.368
BIC	-232.335	-275.229	-260.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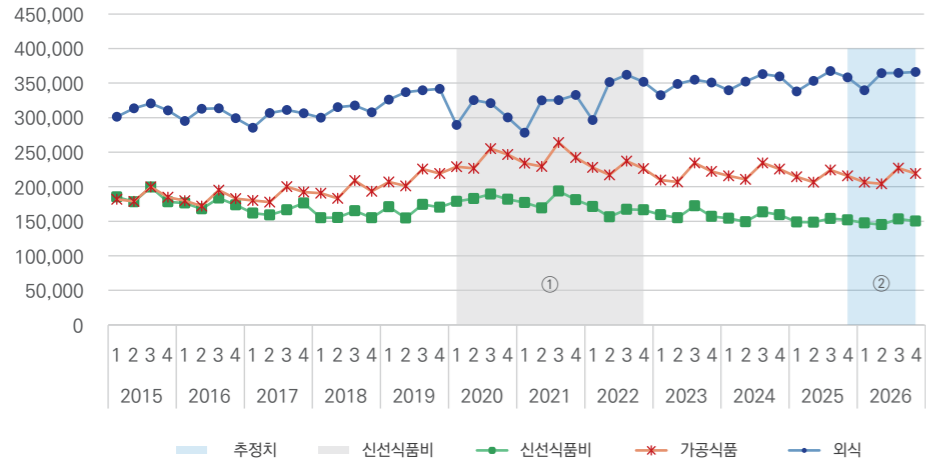
주: 괄호() 안에 표시한 숫자들은 표준편차임.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더미를 제외한 변수는 로그 변환 후 분석함.

● 시계열 모형 추정 결과에 따라 2025년 4분기~2026년 4분기 식품소비 유형별 지출액을 전망함. 그간 신선식품비는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하락하는 추세였으며, 가공식품비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증가 추세였다가 최근에는 유지 또는 소폭 하락 추세에 있음. 외식비는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추세임. 2026년 분기별 지출액 전망 결과, 신선식품비와 가공식품비는 전년도 동기 대비 감소 또는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외식비는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5년 4분기 신선식품비는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 2026년 신선식품비는 전년 동기 대비 0.5%(3분기)~2.3%(2분기) 감소 전망
- 2025년 4분기 가공식품비는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 2026년 가공식품비는 전년 동기 대비 -3.7%(1분기)~+1.4(4분기) 수준으로 변화 전망
- 2025년 4분기 외식비는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 2026년 외식비는 전년 동기 대비 -0.8%(3분기)~+3.2%(2분기) 수준으로 변화 전망

가구의 식품소비 유형별 월평균 실질 지출액 추이와 전망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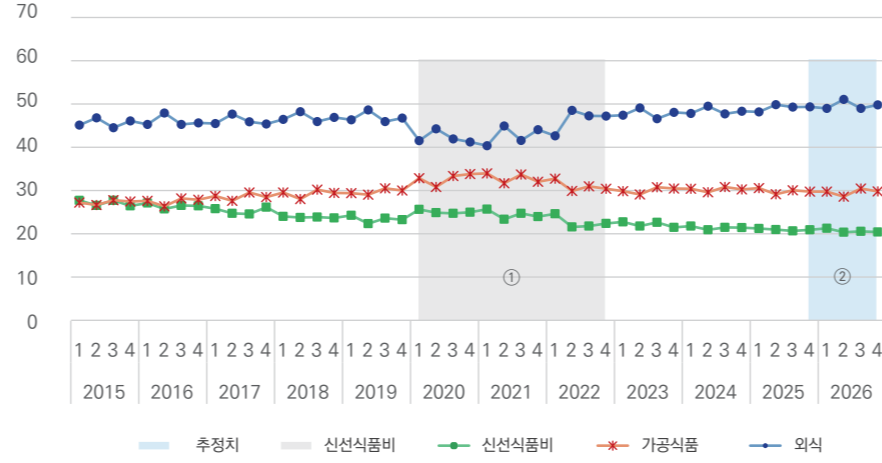


주1) 분석 시 사용한 실질 신선식품비, 가공식품비, 외식비 지출액을 이용하여 계산한 구성비임. 2025년 3분기까지는 실제값 기준이며, 2025년 4분기 이후부터는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으로 추정된 전망값 기준임.
 2) 음영 ①은 코로나19 기간(2020년 1분기~2022년 4분기), 음영 ②는 전망(추정) 기간(2025년 4분기~2026년 4분기).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2025년 4분기부터 2026년 4분기까지 가구의 식품소비 유형별 지출액 비중 전망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할 때 신선식품비 비중은 감소하고 가공식품비 비중은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지는 반면, 외식비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 초반(2020~2021년)에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 지출액 비중이 증가했다가 2022~2023년에 조정되었는데, 신선식품의 비중이 가공식품 비중보다 빠르게 조정되었으며 이후에도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임.
 - 2026년 유형별 지출액 비중을 2019년 동기 대비 비교하면 신선식품비 비중은 2.0%p(2분기)~3.0%p(1,3분기) 감소, 가공식품비 비중은 -0.4%p(2분기)~+0.4%p(1분기)로 비슷, 외식비 비중은 2.4%p(2분기)~3.0%p(3,4분기) 증가 전망
 - 2026년 유형별 지출액 비중을 2025년 동기 대비와 비교하면 신선식품비와 가공식품비 비중은 1%p 미만의 증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외식비 비중 변화도 -0.3%p(3분기)~+1.2%p(2분기)로 변화가 크지 않을 전망

가구의 식품소비 유형별 월평균 실질 지출액 구성 추이와 전망

단위 : %



주1) 분석 시 사용한 실질 신선식품비, 가공식품비, 외식비 지출액을 이용하여 계산한 구성비임. 2025년 3분기까지는 실제값 기준이며, 2025년 4분기 이후부터는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으로 추정된 전망값 기준임.
 2) 음영 ①은 코로나19 기간(2020년 1분기~2022년 4분기), 음영 ②는 전망(추정) 기간(2025년 4분기~2026년 4분기).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3. 가구의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 구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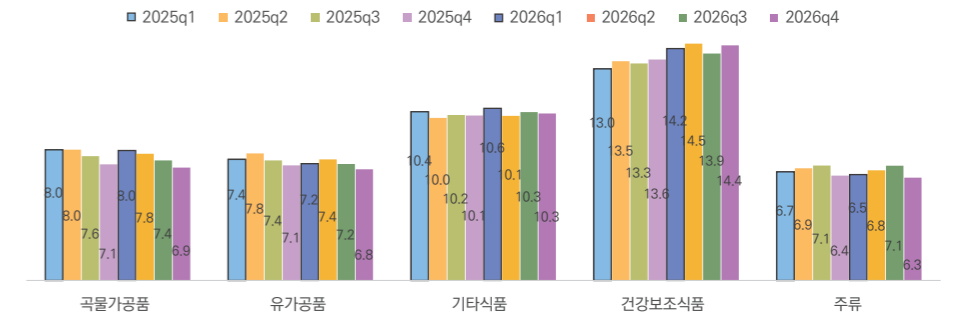
- 가구의 가공식품 분류별 실질 지출액 자료³⁾를 이용하여 2025년 4분기~2026년 4분기의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을 전망하고, 각 분류별 지출액이 가공식품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함.
 - 식품소비 유형별 지출액과 동일하게 계절 ARIMAX(Seasonal ARIMAX) 모형을 이용하고 설명변수도 동일하게 사용(단, 코로나19 더미는 2020~2022년에 해당하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변수를 사용). 연속형 변수는 로그 변환하여 사용
 - 대부분 가공식품 분류에 대해 계절성이 확인되어 계절성을 감안하여 전망하고자 계절차분을 한 차례 실시하는 모형을 적용, 계절성이 확인되지 않는 분류(기타식품, 커피 및 차, 건강보조식품 지출액)의 경우는 계절차분 없이 추세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분석, 주류의 경우 계절차분 후에 추세의 불안정성을 보정하는 방식 적용⁴⁾
- 건강보조식품과 기타식품의 경우 가공식품 16개 품목 분류 가운데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2025년 3분기 기준 각각 13.3%, 10.2%), 2025년 동기 대비 2026년 지출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나머지 가공식품 분류는 대부분 지출 비중이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낮아질 전망이다. 곡물가공품, 유가공품, 주류 지출 비중은 최근 실질 지출액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2025년 동 분기 대비 2026년 지출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됨.
 - 곡물가공품 지출 비중은 2~4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전망(0.2~0.3%p)
 - 유가공품 지출 비중은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전망(0.2~0.4%p)

3) 질화에 사용한 분류별 소비자물가지수는 2025년 발간 예정인 「2025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 보고서」 참조.
 4) 주석 2 참고.

- 기타식품 지출 비중은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 전망(0.1~0.2%p)
- 건강보조식품 지출 비중은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전망(0.6~1.2%p)
- 주류 지출 비중은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 전망(0.1~0.2%p)

일부 가공식품 분류별 월평균 실질 지출액 구성 및 전망(2024년 1분기~2025년 4분기)

단위 : %



저자 정보

- 임지은 부연구위원 (061-820-2273, jelim@krei.re.kr)
- 정희주 연구원 (061-820-2347, luire@krei.re.kr)